

다르마끼르띠의 “베다의 저자 부재설” (Vedāpauruṣeyatva) 비판

함형석

(미시간 대학교)

V. Eltschinger, H. Krasser, J. Taber, *Can the Veda speak? Dharmakīrti against Mīmāṃsā exegetics and Vedic authority: an annotated translation of PVSV 164,24-176,16*, Wien: Verlag der Ö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2012.

본고에서 소개할 『베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Can the Veda Speak?*)는 공저자인 엘싱어 (Vincent Eltschinger), 크라셔 (Helmut Krasser), 테이버 (John Taber)가 2006년 그리고 2008년에 함께 했던 강독회의 결과물이다 (2006년도의 강독회에는 스타인켈러 Ernst Steinkellner도 함께 하였다).

그들이 함께 읽었던 텍스트는 다르마끼르띠 (Dharmakīrti, 6세기¹⁾)의 주저인 *Pramāṇavārttika* (이하 PV) 1장 (「자기 자신을 위한 비량에 관한 장」, Svārthānumānapariccheda)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한 계송들(PV 1.312-340)로서 미맘사학파(Mīmāṃsā)의 ‘베다에는 저자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다르마끼르띠의 반론을 담고 있는 부분이다. 본 책은 위 강독회의 결과물로서, 다르마끼르띠의 자주를 포함한 해당 부분에 대한 영역(英譯)과 함께 다르마끼르띠의 미맘사 비판과 관련한 공저자들 각각의 논문을 싣고 있다.

이 책은 디그나가 이후의 불교 사상가들을 인도철학사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평가하려는 최근의 학계의 경향을 반영한다. 다양한 인도의 학파들 가운데 바비베까 (Bhāviveka, 6세기), 다르마끼르띠, 산타락시파 (Śāntarakṣita, 725-788) 등 인도의 불교 철학사를 대표하는 주요 사상가들이 가장 공동여 비판하였던 논적은 다름 아닌 미맘사학파이다. 불교도들과 미맘사학파의 사상가들, 특히 꾸마릴라 (Kumārila, 6세기)와의 논쟁에서 그들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였던 지점은 바로 각각이 전승하고 있는 성전(聖典, āgama)과 관련한 것이었다. 미맘사학파는 인도 최고(最古)의 텍스트인 베다(Veda)의 절대적인 권위를 확립시키기 위해 그것과 관련한 다양한 이데올로기들을 발전시켰는데 그것들 중 하나가 바로 “베다에는 저자가 없다” (vedāpauruṣeyatva)는 주장이고 이 책에서 번역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주장에 대한 다르마끼르띠의 비판이 실려 있는 부분이다.

사실 다르마끼르띠를 공부하는데 있어 큰 난점은 다르마끼르띠 사상의 난해함과 그의 저술의 지나친 함축성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1) 다르마끼르띠의 연대는 강독회 참가자 중 한 명인 크라서의 설을 따름. 다음의 논문에서 크라서는 바비베까, 다르마끼르띠, 그리고 꾸마릴라의 텍스트에 보이는 유사한 아이디어들을 취합하여 그들이 모두 육세기에 속한 인물들임을 밝히려고 하였다. Helmut Krasser, “Bhāviveka, Dharmakīrti and Kumārila,” in *Devadattīyam: Johannes Bronkhorst Felicitation Volume*, Bern: Peter Lang, 2012, pp. 535-594. 참조.

그에 대한 자료의 방대함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다르마끼르띠의 저술에 대한 직접적인 주석의 양도 여타의 텍스트와 비교해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현대 학자들의 연구 또한 활발하여 이차 문헌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세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다르마끼르띠에 대한 논의의 역사를 모르는 경우에는 다르마끼르띠의 텍스트 자체에 대한 이해는 차치하고서라도 다르마끼르띠에 대한 연구조차 이해하기 힘들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러나 이 책의 돋보이는 장점은 그간 현대 학계에서 소외되어왔던 주제인 ‘다르마끼르띠의 미맘사 비판’에 대해 관련 논의의 맥락을 최대한 풀어놓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번역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론 (Introduction) 부분에서 엘싱어와 테이버는 본서에서 번역하고 있는 부분을 다르마끼르띠 전체 사상의 맥락 속에서 거시적으로 고찰한 후 (Eltschinger, “The Place of PVSV 164, 24-176, 16 in the Work of Dharmakīrti”) 해당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한다 (Taber, “A Synopsis of PV(SV) 1.312-340”). 엘싱어의 논문은 다르마끼르띠의 전반적인 사상 체계 속에서의 해당 텍스트의 의의를 드러내 주면서도 PV 일장에 대한 지주인 *Pramāṇavārttikasvopajñavṛtti* (이하 PVSV; *Svavṛtti*라고 불리기도 한다)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는 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이 요약 작업의 일차적인 목표는 책에 수록된 번역 텍스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겠지만 그의 논문은 단순한 요약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 엘싱어는 PVSV의 전체 내용을 주제별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보여줌으로써 본 텍스트를 공부하고자 하는 독자에게 일종의 지도를 제공한다. 또한 어쩔 수 없이 거칠게 큰 논의의 줄기들을 다루어야만 하는, 그리하여 자세한 디테일들을 생략하고 지나가야만 하는 요약작업이 갖는 필연적인 한계는 그의 간결하면서도 적합한 각주들을 통해 보정되고 있다. 엘싱어가 워낙 책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본서에서 번역한 부분에 대한

요약인 테이버의 글은 오히려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듯 느껴져서 생략되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어지는 번역 부분(Part 1-Translation)에서도 저자들은 다르마끼르띠의 한 문장 한 문장의 맥락을 완전히 풀어 놓으려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본서의 번역부분을 검토해보았을 때 다르마끼르띠는 논적의 여러 입장을 대단히 함축적인 소수의 계승들로 논파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계승에 대한 주석부분에서 다르마끼르띠는 논적의 입장을 수시로 바꾸고 있기에 한 문장과 그 다음 문장이 그의 글만을 읽어서는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본문에서 생략된 맥락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주석서들이다. 본 번역에서는 관련 주석들—Śākyabuddhi와 Kaṇvakagomin의 주석—의 설명을 해당 부분에 대한 번역과 함께 각주에 실어 놓아 다르마끼르띠의 글을 매우 통일성 있게 제시한다. 한 편으로는 다르마끼르띠의 글을 이해하는 데 있어 주석서들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아 해석이 너무 보수적이지 않는가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와 같이 연구가 별로 되지 않은 텍스트를 접근함에 있어서는 현대의 연구자들 보다 훨씬 해당 텍스트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주석서의 의견에 최대한의 비중을 두는 것이 일차적으로는 올바른 독서법이라고 생각된다. 저자들은 또한 불교 전통 내의 주석서들 만에 의존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타 학파의 문헌들과의 교차 검증을 통해 최소화하고 있다. 물론 주석서들이 일차적인 해석도구로서 쓰이고 있기는 하지만, 비판의 대상이 되는 미맘사학파의 기초 텍스트인 사바라(Śabara)의 『미맘사수뜨라』에 대한 주석과 꾸마릴라의 저서들은 물론이고 문법학파와 노야야학파의 문헌들도 관련 내용이 인용되고 있다. 하지만 타 학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르마끼르띠의 논의를 구체적으로 위치 짓는 작업은 본서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더 자세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베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라는 세련된 책 제목이 표현하고 있듯, 미맘사

학파의 ‘베다에는 저자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다르마끼르띠의 비판은 “저자가 없는 글은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기조에 근거한다. 즉, 중생들을 피안으로 이끌고자 한 붓다는 의도적으로 세간의 언어적 관습에 따라 설법한 반면, 베다의 경우에는 저자가 없어 텍스트가 과연 어떠한 식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을뿐더러 베다 자체가 자신의 의미를 청자에게 직접 알려주지도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체적인 논의 구도 속에서 등장하는 개별 논쟁들을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할 수는 없지만, 저자들이 자신들의 논문에서 몇 번씩 인용하고 있는 다음 계송은 다르마끼르띠 주장의 전체적인 논조와 분위기를 잘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베다의 ‘천상을 원하는 자는 아그니호뜨라 제사를 올려야 한다’는 말이 ‘[그러한 자는 개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데에는 어떤 근거가 있는가?” (PV 318, *tenāgnihotraṃ juhuyāt svargakāma iti śrutau/khādec chvamāṃsam ity eṣa nārtha ity atra kā pramā*//; 번역은 p.40) 이 계송에서 다르마끼르띠는 저자가 없는 베다를 이해하는 데에는 아무런 기준이 없기에 그것을 어떤 뜻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취지에서 고의적으로 베다의 문장을 모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본서는 다르마끼르띠가 미맘사학파의 ‘베다의 저자 부재설’을 비판하는 부분에 이어지는 PVSV의 나머지 부분도 — 즉, PVSV의 끝까지 — 번역해 놓고 있는데, 해당 부분은 주제 상으로는 본론과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적어도 주석가들의 이해에 따르면 미맘사학파를 비판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하지만 논적의 입장이 보통 노아야 학파의 것으로 여겨지는 주장이라는 점에서,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엘싱어가 언급하듯이 이는 과연 다르마끼르띠가 상대하던 인물이 미맘사학파의 누구였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게 하며 해당 부분이 향후 연구의 진행방향에 따라 꾸마릴라 이전 미맘사학파의 다양한 전사(前史)에 대해 밝힐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게 여겨진다.

텍스트 번역 이후 수록되어있는 제 2부(Part 2-Studies)는 공저자인 크라셔와 테이버의 다르마끼르띠와 그 논적으로 여겨지는 꾸마릴라를 위시한 미맘사학파에 대한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논문은 그 성격이 매우 다른데 이는 두 필자의 관심분야의 차이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해당 분야의 학계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다시 말해, 크라셔의 다르마끼르띠에 대한 논문은 주제에 대한 학계의 연구가 워낙에 많은 까닭에 주요 연구들의 근거를 검토하고 논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면 테이버의 미맘사학파에 대한 논문은 미맘사학파의 베다 해석에 관한 기본적 태도를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선 크라셔의 「종교적 맥락에서의 논리학: 다르마끼르띠의 불경 옹호」(“Logic in a Religious Context: Dharmakīrti in Defence of āgama”)는 논문의 서두에서 밝히고 있듯 다르마끼르띠가 불경을 포함한 모든 경전을 ‘확실한 인식 수단(pramāṇa)’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즉, 다르마끼르띠는 부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지식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인데, 크라셔 자신이 적고 있듯, 만약 그의 이해가 사실이라면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다. 만약 불교도가 불경의 절대적 진실성을 믿지 않았다면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그는 불교도라는 것인가? 왜 이러한 다르마끼르띠 이해가 여태껏 없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그는 기존의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는 데 주로 던(John Dunne)과 틸레만(Tom Tillemans)의 연구, 그 중에서도 특히 후자의 다르마끼르띠 이해가 비판된다. 크라셔의 분석을 여기에 상세히 옮길 수는 없지만 그는 디그나가의 집량론 계송 2.5ab 부분을 다르마끼르띠가 인용하고 해설하는 부분에 대한 기존 학자들의 이해를 위에서 언급했던 두 주석가들의 해석에 기초하여 길게 비판, 정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후 크라셔는 다르마끼르띠가 성언량, 즉, 경전을 통한 인식에 대해 평가하는 부분의 인용을 통해 다르마끼르띠가 경전을 통해서도 절대

적으로 확실한 인식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으며 이는 미암사학과 특히 꾸마릴라의 디그나가 비판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다르마끼르띠가 불교도임에도 불경의 절대적 진실성을 부정한다는 크라셔의 이해가 처음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졌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의 이해는 논문의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설득력있는 것으로 다가오는데 이는 그의 분석력의 탁월함에서 비롯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다르마끼르띠 자신이 실제로 성언량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분명하게 피력하는 문장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언량에 대한 태도는 다르마끼르띠의 경전 일반에 대한 특별한 편견의 표현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그저 그의 언어와 외부 대상 간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적 입장이 확장되어 적용된 것인데, 일반적인 언어 사용 속에서 한 단어와 외부 대상 간에 주연관계(vyāpti)가 성립하지 않듯, 경전에서 감관으로 지각할 수 없는 천상과 같은 대상에 대해 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천상의 존재를 절대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크라셔의 주장이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의 논의가 논문의 첫 부분을 읽을 때 주는 충격을 고스란히 담아내지는 못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물론 다르마끼르띠가 불경에 절대적 진실성을 부여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경을 여타의 힌두 경전들과 같은 지위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 역시 “삼중의 분석”(dpyad pa gsum)으로 알려진 경전의 진실성을 테스트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불경을 종교적 행위에 근거를 마련해 주는 여타의 방법이 없는 상황 속에서 유일한 가이드라인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주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표현을 조금 제한하여 “다르마끼르띠가 불경의 절대적 진실성을 부정하였다”는 명제와 함께 “그럼에도 여타의 경전들과 비교하여서는 불경이 가장 낫다고 평가하였다”는 점을 명기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테이버의 논문 「다르마끼르띠와 미맘사학파의 충돌」 (“Dharmakīrti and the Mīmāṃsakas in Conflict”)은 미맘사학파의 입장에서 과연 다르마끼르띠의 비판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 고찰한다. 이를 위해 그는 서두에서 “다르마끼르띠의 미맘사학파에 대한 지식의 깊이와 정밀성을 평가”해 볼 필요성을 제기하고 다르마끼르띠의 미맘사 비판 내용을 정리하며 이를 미맘사학파의 의견과 비교해 보는 식으로 논문을 구성하고 있다. 이때 테이버가 미맘사학파의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은 주로 사바라의 것이다. 크라셔의 논문과 비교할 때 테이버는 기초 자료를 설명하는 데에 보다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미맘사학파에 대한 현대 학계의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비롯하지는 않는다. 최근 들어 다르마끼르띠의 시대에서부터 불교의 주요 논적으로 등장한 미맘사학파에 대한 연구가 부쩍 증가하고 있는데, 그 연구가 대부분 총 12장 (adhyāya)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맘사수뜨라의 첫 번째 장, 그 중에서도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따르까빠다” (Tarkapāda)라고 불리는 첫 번째 절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다. 하지만 테이버의 논의는 따르까빠다 이후의 아르타바다(arthavāda; 베다에서 직접적으로 제식 행위를 명령하는 vidhi류의 문장이 아닌 제식에 대한 설명문)에 대한 절과 스므르띠(smṛti; śruti로 불리는 베다에 근거함에 의해 권위를 갖는 다르마샤스뜨라 Dharmaśāstra 등의 텍스트)에 관한 절인 첫 번째 장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절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관련 연구가 별로 없어 실제로 논쟁의 대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비록 그의 해당 부분에 대한 개관이 무미건조한 설명으로 일관하더라도, 그 시도 자체에 큰 의의를 부여할 만하다.

다르마끼르띠의 비판 부분에 대한 미맘사학파의 입장을 설명해나가면서 테이버는 미맘사학파의 베다 해석이 다르마끼르띠가 말하는 것처럼 자의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아그니호뜨라 제사를 올려야 한다”는 문장을

“개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식으로 마구잡이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테이버의 논의는 미맘사학파는 베다를 해석하는 객관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러한 이미 정해진 베다 해석에 관한 원칙들이 있기 때문에 미맘사학파에게 있어 베다 해석의 일관성과 정당성은 보장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는 이러한 미맘사의 기본적인 해석 원칙들을 고려했을 때 다르마끼르띠의 미맘사학파에 대한 개괄적인 지식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다르마끼르띠의 미맘사 비판은 “미맘사의 진정한 강점은 무시하고 근원적인 문제점들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p. 149). 하지만 다르마끼르띠의 미맘사 비판이 부당하다는 점에는 동의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같은 문제를 접근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한다. 논쟁적인 텍스트를 대할 때 논자가 상대방을 왜곡했다고 결론내리기는 쉽다. 그러나 논자들이 왜 그 점을 그러한 방식으로 왜곡하고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그래야만 논쟁사를 구성함에 있어 논자들이 서로에게서 가장 두려워했던 점과 상대방에 대해 자신의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그들의 의식구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다르마끼르띠가 미맘사의 입장을 왜곡하여 전달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그의 미맘사학파에 대한 지식의 얕고 깊음을 측정할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크라셔와 테이버의 두 논문은 책의 전체적인 주제의식과 관련하여 약간의 아쉬움을 남긴다. 두 편 모두 책이 담고 있는 번역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이 아닌데다가 다루고 있는 논제들 또한 번역 부분의 이해를 돕는 데에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 자체가 조명하고자 했던 PVSV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향후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논문은 그들 각자의 평소 관심 주제를 고려한다면 번역 부분을 읽고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반응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바로 이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된다. 앞에서 언급했듯 이 책은 저자들이 함께 했던 강독회의 결과물이다. 세계적인 수준의 학자들이 공통된 관심사를 주제로 한 데 모여 난해한 텍스트를 함께 읽고 번역하고 다듬어 학계에 그 성과를 발표하는 모습도 아름답지만 강독회에서 읽은 텍스트를 통해 바라본 자신의 평소 관심사에 대한 두 편의 논문도 그들의 솔직함이 배어 있는 것 같아 보기가 좋다. 국내에서도 그간 그 중요성에 비해 연구가 소홀했던 다르마끼르띠에 대한 관심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최근 다르마끼르띠의 저작을 비롯한 6세기 이 후의 철학적 저작을 함께 읽는 모임이 결성되어 매주 다르마끼르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세계 학계의 흐름에 비해 많이 늦은 것은 사실이나 참가자들의 열정을 감안할 때 조만간 이 책과 같은 유의미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며 리뷰를 마친다.